

■ 2026 새해설계 조상래 곡성군수

“남녀노소 머물 수 있는 ‘활력도시’ 곡성 만들 것”

매월 기본소득 15만원 지급…소상공인 매출 기대
곡성읍 빛마루센터 등 준공·부자 농촌 만들기 집중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마을,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고향, 노년까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활력도시 곡성을 만들겠습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신년사에서 “기본 소득을 대한민국 농어촌의 새로운 모델로 완성해 누구나 고향에서 당당하게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곡성다운 미래를 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새해 곡성은 전 군민에게 매월 기본소득 15만원을 지급한다.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군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곡성에서의 소비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진다.

올해부터 전 군민 버스 무료화를 전면 시행해 군민의 이동이 편해지고, 지역 곳곳이 더 가까워지며 생활의 질이 눈에 띠게 높아질 것이다.

곡성읍 빛마루센터와 오곡면 행복이움

터 등 생활 거점 공간을 올해 준공하고,

농업의 가치가 존중받고 농업인이 대



기초생활 SOC 투자도 지속해 정주 여건을 더욱 텁텁히 한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더 많은 군민이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의 가치가 존중받고 농업인이 대

우받는 부자 농촌 만들기에 집중한다.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90명까지 확대해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농가 경영 안정화에 기여한다.

입면 스마트팜 거점 단지는 올해 조성을 완료해 청년 농업인이 미래 농업을 선도하고 AI 스마트 재배 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한다.

블루베리 장기 출하 체계 정착, 멜론 스마트팜 지원, 팔기·체리·찰옥수수·단감 등 지역에 적합한 특화 작물을 육성해 재값 받는 농업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대표 온라인 플랫폼인 곡성몰은 입점 확대와 판촉 지원을 늘려 온라인 판매 실적을 한층 높인다.

또 농산물 택배비와 포장재 지원,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을 통해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 향상을 나선다.

농번기 공동급식도 대상마을을 확대하고 영농폐기물 공동 접이장 설치 개소수 도 더 늘려서 지속 가능하고 폐적한 농촌 환경을 만든다.

섬진강 기차마을은 철도공원 조성을 옮해 마무리하고, 기차 플랫폼과 연계한 다목적 광장을 조성해 단순 방문이 아닌 머무르고 즐기는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생태형 산림관광 정원과 장미공원, 동화원을 연계한 정원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곡성형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으로 부모의 긴급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책임진다.

어르신 복지도 더욱 세심하게 챙긴다. 경로당 운영 지원,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서비스를 추진하고 곡성형 3S 스마트 맵을 활용한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을 더욱 강화해 노년에도 편안하고 존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군은 ‘바로폰’과 ‘유난히 좋은 날’을 적극 활용해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공감행정을 실천한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올해 곡성군은 삼국지의 명장 관우의 적토마처럼 묵묵하게 힘차게 전진하겠다”며 “기본소득과 버스 무료화, 계절근로자 확대 등 을 통해 추진할 모든 정책이 군민의 삶에서 분명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행기겠다”고 말했다.

곡성 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



고흥군은 국립 다도해 산림치유원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에 대비해 산림휴양 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보성몰, ‘말차’ 중심 차별화 전략 통했다

지난해 매출액 22억 기록…전년보다 12% 증가
말차 제품 50% 이상 급증…전체 판매 실적 견인

보성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직거래 장터 ‘보성몰’이 지난해 매출액 22억원을 돌파했다.

15일 보성군에 따르면 보성몰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2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번 성과는 보성군의 차별화된 콘텐츠인 ‘말차’ 중심 전략이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된 말차 소비 흐름에 맞춰 관련 상품을 집중적으

로 홍보하고 육성한 결과, 보성몰 내 말차 제품 매출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며 전체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보성몰은 높은 재구매율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 구조를 구축했다.

명절 시즌 최대 20% 할인 행사를 비롯해 신규 회원 가입 시 3000p 지급, 구매 금액의 3% 적립, 출석 체크 포인트 지급, 후기 작성 포인트 지급 등 고객 친화적인 혜택과 이벤트를 통해 충성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



한 결과 전년 대비 회원 수가 10% 증가한 것도 매출 상승의 밀거울이 됐다.

군은 올해 ‘보성몰 제2의 부흥기’로 정하고, 더욱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인플루언서 협업 마케팅을 통해 젊은 소비층 유입을 가속화하고, 입점 업체에 대한 품질 관리와 상품 검증을 강화해 ‘보성몰 제품은 믿고 산다’는 브랜드 이미지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현재 보성몰에는 180여개 업체, 1000여개 품목이 입점해 있으며, 청정 자연에서 키운 보성 차(茶), 키위, 꼬마, 녹돈, 올벼쌀 등 지역 대표 특산물을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보성-임대형 기자

순천, 마스코트 ‘루미·뚱이’ 활용 지역 먹거리·브랜드 육성

4개소 각 250만원 지원

순천시가 지역 마스코트 루미·뚱이를 활용한 포장지 제작 지원을 통해 순천 특화 디저트 상품을 육성하고 먹거리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순천 먹거리 흥보 포장지 제작 지원 사업 참여 대상자 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제과·제빵·커피 등 지역의 경쟁력 있는 디저트 상품에 순천시 마스코트를 활용한 흥보 포장지를 제작·지원해 디저트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 업소로 총 4개소를 선정해 포장지 제작·구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1개소당 2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접수는 관광과 미식관광팀(순천시 중앙로 232, 삼산도서관 4층) 방문 또는 이메일(guswo5151@korea.kr) 접수로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디저트 상품에 캐릭터를 입혀 관광객의 구매 욕구를 높이겠다”며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순천을 대표하는 먹거리 브랜드를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순천=박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고흥, 산림휴양 네트워크 구축 속도

국립 다도해 산림치유원 조성 준비

고흥군은 국립 다도해 산림치유원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에 대해 산림휴양 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국립 다도해 산림치유원은 천등산 일원 약 277㏊에 조성될 예정으로, 광주·전남·부산·경남을 이우르는 남해안권 산림복지 수요를 총족하기 위한 국립 최초 해안형 산림치유원이다.

2026년 정부 예산에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원이 반영되며, 사업은 본격적인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

군 관계자는 “국립 다도해 산림치유원 조성은 고흥군 산림휴양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 국가 산림치유 정책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산림휴양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팔영산

자연휴양림, 팔영산 편백 치유 숲,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등 기존 산림휴양시설과 국립 다도해 산림치유원의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팔영산·마복산 일대를 중심으로 치유·휴양·체험·교육 기능이 접合된 산림휴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체류형 산림휴양과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산림휴양 벨트 및 산림휴양 클러스터로 만든다.

군 관계자는 “국립 다도해 산림치유원 조성은 고흥군 산림휴양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 국가 산림치유 정책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산림휴양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장흥의 보물 ‘풍아의’ 실물콘텐츠 제작

국비 16억7000만원 투입…연내 사업 완료

조선 전기 시문학 교육서이자 국가 보물인 장흥군의 ‘풍아의’이 올해 동산문화 유산 실물콘텐츠 제작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풍아의’은 조선시대 시문학 교육 서역을 수행한 책으로, 세종 24년(1442) 초주감인자로 간행된 후 명종 8년(1553)에 다시 간행돼 조선 중기 문신 백 광흥에게 하사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국내에 전해지는 유일한 완본(15권 10책)으로 학술적·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아 2010년 국가 보물 제1664호로 지정됐다.

장흥군은 지난 2023년 이후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장흥 풍아의 실물콘텐츠(영인본·모사본) 제작과 제작 완료 후 이를 활용한 대국민 전시다.

올해는 풍아의 등 6건의 동산문화 유산 실물콘텐츠 제작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주요 사업 내용은 국가 지정 동산문화 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해 실물콘텐츠(영인본·모사본) 제작과 제작 완료 후 이를 활용한 대국민 전시다.

올해는 풍아의 등 6건의 동산문화 유산을 선정해 총 사업비 16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1월 중 국가 유산청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후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풍아의 실물콘텐츠 제작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역민과 국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벨 문학 도시 장흥의 수준 높은 지역 문화유산을 알리고 보존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